

미 우주군이 차세대 공중지속적외선체계(OPIR) 구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미 우주군은 올해 초 록히드마틴과 차세대 OPIR 구축을 위한 미사일 경보 위성 3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49억 달러(5조4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는 신형 폭발물처리(EOD) 무인지상차량이 최근 공개됐다. 이 차량을 개발한 스페인 아우나브(aunav)에 따르면 이 차량은 임무·상황에 따라 폭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안정화 사시가 적용돼 험한 지형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아르마(Arma) 8×8 보병전투장갑차의 시험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말레이시아 해군이 사용할 4번째이자 마지막 케리스급 연안임무함정(LMS)이 진수됐다.

임채무 기자

미국 우주군, 록히드마틴과 미사일 경보 위성사업 계약 체결

차세대 OPIR 구축 위해 49억 달러 들여 위성 제작

<공중지속적외선체계>

미 우주군이 올해 초 록히드마틴과 차세대 공중지속적외선체계(OPIR) 구축을 위한 미사일 경보 위성 3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의 규모는 49억 달러(5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록히드마틴은 지난 2018년 차세대 OPIR 사전 준비 사업의 하나로 29억 달러(3조19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차세대 OPIR은 미국이 우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열적외선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체계인 우주기반적외선체계(SBIRS)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10월 상세설계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제작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됐고,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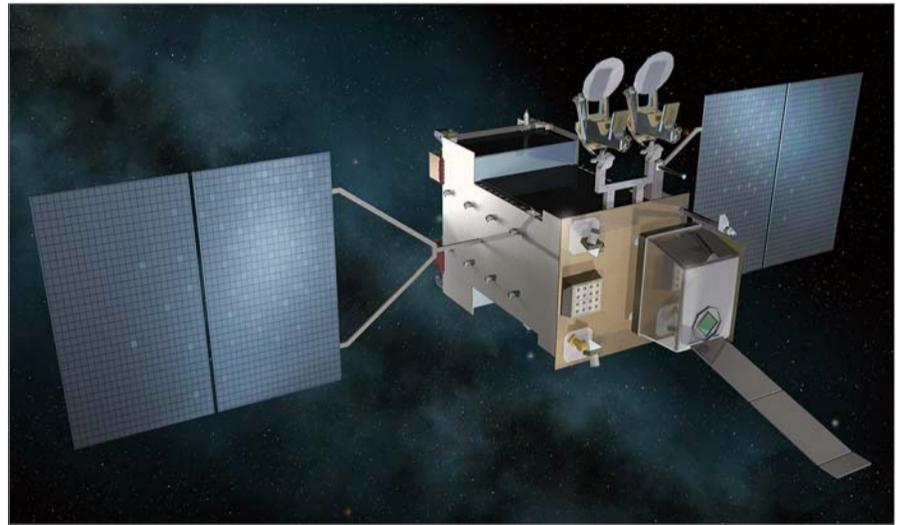
미국 우주·미사일체계센터(SMC)는 “차

세대 OPIR은 지구정지궤도 위성 3대와 극지역 담당 위성 2대 등 총 5대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지구정지궤도 위성은 록히드마틴이, 극지역 담당 위성은 노스럽그루먼이 제작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 우주군은 중요 비행 하드웨어에 대한 1단계 설계·개발·조달을 하고, 상세설계검토를 위한 위험감소 노력을 위해 지난해 5월 노스럽그루먼과도 24억 달러(2조6400억 원) 규모의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노스럽그루먼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스가 볼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차세대 OPIR을 위한 적외선 센서 2대를 개발하고 있다.

미 우주군은 차세대 OPIR의 첫 번째 위성을 2025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우주군이 올해 초 록히드마틴과 차세대 공중지속적외선체계(OPIR) 구축을 위한 미사일 경보 위성 3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의 규모는 49억 달러(5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차세대 OPIR 위성체의 예상도. 출처=c4isrnet.com

중국 말레이시아 해군용 연안임무함정 진수

케리스급으로 인수시험·해상시운전 중

중국 조선산업그룹은 최근 말레이시아 해군이 사용할 4번째이자 마지막 케리스급 연안임무함정(LMS)을 진수했다.

현재 이 함정은 말레이시아에 인도돼 일련의 항만 인수시험과 해상시운전을 받고 있다.

이 함정이 정식 운용에 들어가면 제11 LMS전대에 소속돼 말레이시아 세팡가르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도된 함정 중 2~3번째 함정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올해부터 임무 수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 조선산업그룹은 최근 말레이시아 해군이 사용할 4번째이자 마지막 케리스급 연안임무함정(LMS)을 진수했다. 사진은 케리스급 연안임무함정의 모습. 출처=janes.com

스페인 신형 폭발물처리(EOD) 무인지상차량 공개

자체 크기 변경 가능한 세계 첫 번째

스페인 아우나브(aunav)가 신형 폭발물처리(EOD) 무인지상차량(UGV)을 최근 공개했다. 아우나브(aunav)는 이 차량은 임무·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크기 변경이 가능한 세계 첫 번째 무인지상 차량이라고 밝혔다.

‘aunav neo’로 불리는 이 UGV는 화생방핵(CBRN) 작용제, 급조폭발물, 탄약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길이 0.815m, 높이 0.848m이며 폭은 명령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가변 구조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최소 0.4m~ 최대 0.68m다. 특히 자체 안정화 사시가 설치돼 굴곡이 있는 지형과 계단 등을 통과할 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우나브(aunav) 관계자는 “이 차량은 가변 구조체계와 자체 안정화 체계를 결합하고 있어 어떠한 운용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콤팩트한 크기와 모듈식 설계 덕분에 해제된 다음 승용차의 트렁크



스페인 aunav가 최근 공개한 신형 폭발물처리(EOD) 무인지상차량(UGV) 모습. 출처=janes.com

를 포함해 다양한 차량에 수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차량에는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자율적 항법체계가 구비돼 실내외 구분 없이 기동이 가능하다. 파블로 바스케스 사장은 “이 차량이 자사의 제품 중 가장 가벼운 모델로서 필요에 따라 700m~3km 거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글로벌디펜스뉴스

카자흐스탄 터키의 아르마(Arma) 장갑차 시험

기존 바리스8 계약 지연에 다양한 추측

카자흐스탄 국방부는 최근 SNS를 통해 오토카르의 아르마(Arma) 8×8 보병전투장갑차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계재된 내용에 따르면 시험은 6km 기동시험과 주야간 실사격 시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6km 시험과정에는 장애물 극복시험과 30~65cm 두께로 쌓인 눈을 처리하는 시험이 이뤄졌다. 이번 발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방부는 종전까지 8×8 보병전투장갑차 후보로 바리스8 장갑차를 고려했었다. 2017년 말과 2018년 초 동계시험을 한 것은 물론 107대를 조달하기 위한 협력각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표는 바리스8 장갑차의 확정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현재 바리스8 장갑차를 개발한 합작투자업체 KPE는 확정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파산신청 및 회사 폐쇄조치를 할 것이라는 공식서한



카자흐스탄 국방부가 최근 시험했다고 밝힌 아르마 8×8 보병전투장갑차 모습. 출처=janes.com

을 발송했다.

한편 바리스8 장갑차는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라마운트 그룹 간의 합작투자업체인 KPE가 개발했다. 이 차량은 터키 아셀산이 개발한 네페르 원격운용무장장치(ROWS)를 구비하고 있으며, KBP 인스트루먼트 설계국이 개발한 시푸노프 2A42 30mm 자동포 및 7.62mm 기관총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